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 적정성 문제 ‘도마 위’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석호 “주거지·학교 등 구치소 근접”
김나운 “지하철 침단대교 운행 우려”
박수기 “대우위니아사태 대책마련을”



조석호 광주시의회 의원이 3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 아파트·학교와 초근접한 광주구치소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 등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적정성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침단대교 구간의 안전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3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일곡동 1-3 일원으로 계획된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가 북구 일곡동 주거지와 학교시설에 근접해 있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80m 떨어져 있고, 인근에는 유치원, 학교, 우지공원 등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주민 불안이 상당한 상황에서 광주시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지, 광주시도 동의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후보지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광주구치소 설치 장소로 일

곡동 부지를 발표했다”며 “광주시는 주민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부지 전면 재검토 및 부지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지상인 침단대교를 운행하도록 설계된 가운데 교각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나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97년 준공된 침단대교는 이미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하중 증가가 구조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침단 3지구 개발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도 더해지면 안전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상 노선이 확정되면 해당 철도는 수십 년 이상 유지될 텐데, 이는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착공 이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광주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시 지하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침단대교는 지상으로 승인됐다”며

“경전철인 2호선이 통행하더라도 안전성 문제는 없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우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법정관리 중인 대우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한다”며 지역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고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기반 약화는 지역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광주시가 제조업 보호,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 등 실질적 대책을 담은 종합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와 경제·산업계가 연대해 위니아 회생 절차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가전산업을 비롯한 광주 대표산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술·제조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7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38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신수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와 전국 곳곳을 강타한 화재, 극심한 기후 이상 현상 등으로 민생과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회기 동안 동료 의원들이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광주시와 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하자”며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전남개발공사, 전남도에 100억 배당

창립 이래 최초...10년 연속 흑자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남도에 100억 원을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정부 교부금 축소, 지방소멸 대응 등 전남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28일 제174회 이사회에서 경영 성과와 재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24년도 당기순이익 290억 원 중 100억 원의 배당을 의결·결정했다.

이 같은 결실은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 지난

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분양도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고,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통해 이익 감소 요인을 사전예측하고 사업별 공정을 관리, 철저한 원가심사 등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당기순이익 290억 원을 기록,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부채비율도 26%로 창립 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금융 부채 비율은 14%로,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미룬다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않기로 ‘숙의 과정 등 거쳐 법적기한내 결론’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수개월째 찬반 논란을 빚었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수정 의장은 3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2월 24일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다”며 “시의회는 차후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법적 기한 내 안건을 상정

·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총장·침단·상무지구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쇠락한 원도심에 거주 및 소비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상권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심철의 산업건설위원이 대표발의 했다. 반면 광주시는 학교·도로 부족, 주거시설 주변 유충주점·숙박시설 혼재,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

면서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정기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달인 5월 시의회가 광주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갖고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염두해 4~5월 임시회를 6월로 연기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2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시의회에 조속한 안건 상정과 표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성현 기자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국민 지지서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 담배소송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이 2014년 담배회사(주)kt&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타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 서명운동 참여 방법

온라인
QR코드 스캔 또는 전송된 링크로 작성 제출

지지서명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지지서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제출